

# “정치는 아직... 히말라야와 약속 ‘인생 17좌’에 힘 쏟겠다”

## 영화 ‘히말라야’ 실제 모델 산악인 엄홍길 대장

### 네팔 10번째 휴먼스쿨 23일 준공... ‘16곳 개설’ 순항

“정치보다 히말라야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죠. 네팔 히말라야 오지에서 자라는 어린이를 위해서 16개의 학교를 짓는 ‘인생 17좌(座)’를 마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엄홍길(56·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 대장은 최근 서울시 중구 장충동 ‘엄홍길 휴먼재단’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꿈을 이루게 해준 히말라야와의 소중한 약속이 먼저다. 아직은 내 길이 아니다”며 정치권의 러브콜을 고사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영화 ‘히말라야’의 흥행 성공과 함께 여당의 4·13 총선 비례대표 영입 제안으로 인해 화제를 모았다.

◇히말라야에 16개 학교 건립 나서 = 엄 대장은 41세이던 2007년 5월 로제샤르(해발 8400m)를 4번 도전 끝에 오르며 세계 최초로 16좌 완등의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생사를 넘나드는 신(神)의 영역인 8000m급 봉우리를 오르면서 “살아서 내려가게만 해주면 제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살겠다”고 맘속으로 약속했다. 히말라야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내일의 행복을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결심이었다. 갈망하던 목표를 다 이룬 그는 ‘사람’을 인생의 17좌로 정했다.

그리고 엄 대장은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16개를 히말라야 산간 오지에 지어주는 ‘휴먼스쿨’ 건립 프로젝트에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13개 학교가 착공됐고, 오는 23일 10번째 학교가 건지에 완공된다. 한 학교를 건립하려면 1년여가 소요된다. 학교들이 차량이동이 어려운 오지에 위치하다 보니 모든 건축자재를 인력으로만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당 건립비용은 3억~5억여원 규모.

또한 엄 대장은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산행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 정신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가 인간 언어 중 가장 아름다운 말로 꼽는 단어는 ‘도전’과 ‘나눔’이다.

또한 최근 영화 ‘히말라야’(감독 이석환)의 흥행 성공으로 엄 대장의 2005년 ‘조모람마 휴먼원정대’가 재조명을 받았다. 영화는 2004년 에베레스트 등정 후 하산하다 해발 8750m에서 생을 마감한 후배 산악인(박무택·백준호·장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엄 대장과 ‘휴먼원정대’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인간애와 약속, 희생정신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는 영화는 관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영화를 6번 봤어요. 볼 때마다 눈물나죠.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 상황들하고, 현장들이 오버랩되니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관객들보다 더 강하죠.”

엄 대장과 박무택 대원은 칸첸중가(해발 8586m), K2(8611m) 등 8000m급 봉우리를 4번이나 같이 올랐다. 특히 2000년 칸첸중가 등정 때에는 8500m 방백에 매달려 야영 장비없이 ‘죽음의 비박’(bivouac)을 했다. 그래서 엄대장에게 고인은 등반파트너 이상, 친동생이나 다름없었고 ‘등지한, 산 같은 후배’였다.

엄 대장은 사고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이 라면 몰라도 박 대원은 살아서 내려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다. 엄 대장은 어떻게든 시신을 수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8000m가 넘는 극한의 환경에서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주변에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료 산악인들과 함께 ‘휴먼원정대’를 꾸려 1년을 준비해 이듬해 현지로 떠나 71일간의 사투 끝에 사고지점에서 머지않은 곳에 돌무덤을 만들었다.

◇18번의 실패는 16좌 완등의 자랑 = 엄 대장은 1985년부터 22년간 8000m 봉우리에 38번 도전해서 20번 성공하고, 18번 실패했다. 에베레스트는 3번 만에, 로제샤르는 4번 만에, 안나푸르나는 5번 만에 정상에 올랐다. 그 외에도 6명의 후배 산악인과 4명의 셰르파를 잃었다.

엄 대장은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강한 파도가 강한 여부를 만든다’며 많은 고통과 시련, 좌절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16좌를 완등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8000m급 16좌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최근 ‘휴먼스쿨’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치권의 러브콜을 고사하고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히말라야 산간 오지에 짓는 ‘휴먼스쿨’ 건립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을 안겨준 산은 안나푸르나(해발 8091m)다. 4전5기 끝에 정상에 올랐다. 1998년 4번째 도전때 7600m 지점에서 오른 다리가 부러지는 최악의 사고를 당했다. 사고지점에서 베이스캠프가 있는 4500m까지 꼬박 2박3일을 기어 내려왔다.

국내에서 수술을 마친 후의료진은 그에 게 다시는 산에 오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2개월 만에 기스를 잘라내고 재활훈련에 나섰고, 사고를 당한 지 10개월 만에 뼈에 박힌 쇠핀 2개를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안나푸르나를 등정했다. 왜 그의 별칭이 ‘히말라야의 탱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엄 대장은 산에서 인생을 깨웠다. 그는 최근 퍼낸 에세이집에서 “산에 오르는 것

은 세상을, 삶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인생은 산과 같은 면모가 있어서 누구나 결국 자신의 두발로 걸어야 한다. 인생은 캐이불카를 타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두발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다”고 썼다. ‘휴머니스트’ 산악인 엄홍길의 인생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U대회 성공 노하우, 수영선수권 접목한다

### 김윤석 U대회 사무총장, 2019 세계수영대회도 맡아

김윤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다. 광주U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드림팀’의 노하우를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접목하기 위한 것이다. 김 총장의 가세로 광주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단(단장 송승종)의 업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U대회 성공 개최의 주역이자 수영대회 유지의 핵심을 맡았던 김 총장의 노하우가 지원단에 녹아들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사실상 김 총장에게 전권을 맡겼다. 시는 16일 “김 총장이 연말까지

세계수영대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시장이 지난 12일 김 총장을 만나 수영대회 업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1935억원으로 추산되는 대회 운영 및 시설비 확보를 비롯해 세계수영연맹(FINA)과의 각종 협상 등에 나서게 된다. 스포츠 행정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굵직한 현안들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시는 수영대회 관련 예산을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린 뒤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할



계획이다. 또, 세계수영연맹과 대회 경기장 규모 결정, 사업비, 광고비 등 제반적인 협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불리는 김 총장은 국제스포츠계의 인적 네트워크에도 강점이 있는데다, 수영대회 유지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현재 광주U대회 조직위는 대회 백서 발간, 선수촌 소송 등이 마무리 되는데로 법안 해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U대회 성공개최와 대회기간 효율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

취재 지원 등 한국 스포츠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한국체육기자연맹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광주U대회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메르스 등 재난을 극복한 대회,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담긴 대회 등으로 불리며 ‘성공대회’의 신화를 작성했으며 그 중심에 김 총장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문체부 관계자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호평도 이어졌다.

2019년 7~8월 사이 열린 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전문 수영인들이 참석해 경연하는 월드챔피언십과 수영 동호인이 참가하는 마스터스선수권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월드챔피언십은 16일간,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12일간 열린다. 시는 월드챔피언십에는 8000여명의 전문 수영인들이, 마스터스 선수권대회에는 전 세계 수영동호인 1만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

## 광주 ‘고충민원 처리’ 전국 최하위 등급

경기도와 서울시가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광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공개했다.

고충민원이란 일반 건의나 신청 민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해결 요구를 말한다. 권익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고충민원의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 등을 조사해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2.0%), 우수 39개(16.0%), 보통 53개(21.8%), 미흡 53개(21.8%), 부진 93개(38.2%)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중에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광주는 최하위 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체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서울 은평구, 강원도 횡성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군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등 16개 시, 광주 광산구, 서울 강남구, 부산 동구, 인천 계양구, 대구 남구 등 35개 구, 강원도 양구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산청군,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등 41개 군이 부진 등급을 받았다.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시·도는 평균 83.7점으로 전년도 대비 5점 상승했고 시는 74.1점으로 2.1점 올랐으나 구는 64.4점으로 전년도보다 5점 하락했고 군은 전년도와 같은 65.6점으로 집계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증권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문자 비법!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 18(월) ~ 2016. 2. 25(목)
- 수업기간 : 2016. 3. 3 ~ 2016. 6. 9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 18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230-7700~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6년 부동산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특강**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시	2016. 2. 17(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1) 2016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쪽집게 투자 전략 대응법 공개  
(2) 부동산 지역별/물건별 맞춤 투자 전략

2교시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공개 및 정확한 수익성 분석  
(2) 부동산 가격 상승 핵심지역 분석-임대수익과 시세 차이 동시 공략 비법

3교시 (1) 개발지 토지 투자(소액포함)로 영원히 월세받는 비법 대 공개-이벤 기회 놓치면 후회!!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자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자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자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